주요개념 : 집단의사소통프로그램,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우울

집단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정신질환자 어머니 집단을 중심으로- *

이 길 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은 개인과 가족의 성장발달과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이다. 초기 인격형성은 가정에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인간의 성숙은 집단속에서 관계를 통하여 인격성숙이 되며 건전한 인격소유자는 건전한 정신을 보유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되는 긍정적인 정서에 의해서는 사랑, 온정, 인정감을 지각하게 되고 자기존중감과 가치감을 갖게 되며 일치적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반면에 부정적 정서에 의해서는 거절감, 증오감, 적개심, 불인정감을 지각하게 되고 열등감과 무가치감을 갖게 되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Satir, 1983).

의사소통의 형태로서의 감정표현이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갈등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와 관심사 즉 긍정적 부정적 감정과 반응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과 주변상황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의 느낌과 반응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김정희, 1981).

Satir(1983)의 가족 의사소통 치료기법은 주로 의사소통 이면에 흐르고 있는 감정에 대한 지각과 이해를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의사소통형태를 지각하고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자신의 내면적 감정과 언어행동이 일치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고 도운다 (유수경, 1996 ; Satir, 1983). 정신질환자(만성병)가 있는 가족은 가족체계내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부정적 감정의 누적과 욕구불만의 누적이 상징적인 정신증상으로 표출된 것이다. 즉,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은 영향을 심하게 받아서 극복해 나갈 수 없을 때 증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가족역동의 악순환의 주역은 부모관계가 요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가족치료이론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송성자와 정문자, 1994 ; 홍경자, 1983 ; Baldwin, 1991 ; Walsh, 1982 ; Jackson, 1965).

정신질환자의 어머니는 자녀인 환자에게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영향요인도 되며 발병 후에는 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환자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각 가정에서 머물다가 다시 입원하게 되는등 평생동안 가정생활과 재입원을 반복하면서 일생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의 의사소통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족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메시지 체계를 통하여 의미를 공유하고 정서적 교류와 가족기능이 순조로워지고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되며 가족의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 (Olson et al, 1983). 가족은 정신질환자의 재발관리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역기능적 의

* 본 연구는 1998년 2월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 논문임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사소통을 계속하게 되면 욕구불만과 부정적 감정이 누적되고 무의식적으로 투사되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므로 정서적 갈등 불안 우울증상을 만들게 된다(이장호, 1991).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참고 견디게 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환자어머니를 대상으로 집단의사소통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탐색을 하고 감정을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환자의 어머니 자신의 의사소통능력과 정신건강 유지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과 환자를 돌보는 재활치료자 역할을 도우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상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을 기능적 의사소통유형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의사소통이론과 Satir의 가족의사소통이론을 근거로 한 집단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정신장애자의 어머니에게 훈련한 후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우울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함이다.

2. 연구가설

1)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행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정도가 낮을 것이다.
2)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행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기존중감 정도가 높을 것이다.
3) 집단의사소통프로그램을 실행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정도가 낮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10회 실시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군 대조군으로 나누어 사전 사후 차이 검정을 하는 유사실험 연구이다.

	사전조사	처치	사후조사
실험군	E_1	×10	E_2
대조군	C_1		C_2

$E_{1,2}$: 역기능적 의사소통 척도 × 10 : 집단의사소통르로그램
자기존중감 척도 10회 처치
우울상태 척도
$C_{1,2}$: 역기능적 의사소통 척도
자기존중감 척도
우울상태 척도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시내 P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험군은 20명, 대조군은 25명으로 임의표집하였다. 1997년 5월 1일 부터 9월 11일까지 4개월 동안 집단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대조군은 가족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자이었고 실험군은 다음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택하였다.

연구참여를 허락한자,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 의사교류가 가능한자, 학력이 중등학교 이상이고 연령은 60대 이하인자이었다.

3. 연구도구

1) 역기능적 의사소통 척도 ; 한국인을 대상으로 송성자(1995)가 개발한 도구이다. 총 60문항으로 4개의 범주로 나누어 권위지향성 15문항, 소심지향성 15문항, 불성실 지향성 15문항, 희생지향성 15문항이다. 배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은편이다 1점, 보통이다 2점, 그런편이다 3점, 아주그렇다 4점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의사소통 양상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0.8619이었다.
2) 자기존중감 척도 ; 전병재(1976)가 작성한 도구로서 이 도구는 Rosenberg의 SSE(Scale of Self-Esteem)와 최정훈의 지각성향검사 중에서 일부문항을 표집하여 3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서, 거의 아니다 1점, 대체로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채점이 되며 부정적 문항은 반대로 채점이 된다. 점수가 높을 수록 자기 존중감이 높은 것이다. 이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0.6357이었다.
3) 우울척도 ; Zung의 자가평가 우울척도(Self Rating Depression Scale)을 송옥현(1977)이 번역한 내용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배점은 매우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3점, 약간 그렇다 2점,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배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상태

가 높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이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0.7593이었다.

4) 집단의사소통프로그램 ; Satir의 가족성장모델의 변화과정 6단계와 치료기법을 토대로 연구자가 만든 집단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타당성 평가는 집단상담분야에서 전문가 9명에게 평가받은 결과는 3.3-4점으로서 적합하다는 것으로 수용되었다.

4. 연구진행절차

1)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훈련 : 집단상담진행자는 연구자와 보조원 1명이다. 연구보조원은 연구자와 다년간 집단상담프로그램에 함께 참석하여 수련을 받았으며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연구자가 작성한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사전연습을 위하여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훈련하였으며 기간은 1997년 5월부터 주2회 모임을 가지고 일회 소요시간은 120분정도 이었다. 5주간 연구자는 집단지도자 역할을 하고 보조원은 녹음하기와 구성원의 언행 관찰 기록을 하는 실습을 하였다.

2) 프로그램진행 : P대학교 병원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선택기준에 의하여 연구대상자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였다. 개인면담을 통하여 선정된 연구 대상에게 먼저 참여허락을 받은 다음 시간과 장소를 알리고 실험집단은 A, B 집단 각각 10명씩, 대조집단은 25명을 선정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1997년 7월 첫주부터 9월 첫주까지 진행하였다. 대조군은 1997년 7월 첫주와 9월 첫주에 가족건강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종속변수를 측정하였고 실험군은 1997년 7월 첫주부터 9월 첫주까지 교육하였다.

- 각 회기말에 지도자와 보조자는 함께 토의함과 동시에 다음회기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 프로그램 회수와 시간은 주당 2회, 1회 소요시간은 120분간 정도 이었다.
-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행한후 자기변화내용을 알기위하여 전체집단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내담자가 소감문을 작성하여 1주일내에 우송하도록 하여 수집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미칠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전검사의 점수를 공변수로, 사후검사의 점수를 종속변수로, 집단을 독립변수로 하는 공변량분석으로 가설검증을 하였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점수 및 하위유형 점수와 자기존중감, 우울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상관관계를 보았다.

6. 연구의 제한점

일부지역에서 살고있는 일개의 병원의 정신과에 통원치료하고 있는 가족의 어머니 대상이므로 결과를 확대해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Ⅲ. 연구 결과

정신질환자 자녀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우울상태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특성간을 비교한 결과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일반적 특성은 유사하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전 종속변수에 동질성이 검정되었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 · 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우울 정도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 · 후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우울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평균점수는 각각 101.00, 102.65이었으며 실험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점수는 각각 77.45, 100.27이었다.

실험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지존중감 평균점수는 각각 94.15, 93.02이었으며 실험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점수는 각각 104.35, 92.93이었다.

실험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평균점수는 각각 95, 46.56이었으며 실험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평균점수는 각각 41.45, 43.94이었다.

〈표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 · 후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우울 정도의 비교

내 용		실 험 군		대 조 군	
		M	SD	M	SD
역기능적 의사소통	전	101.00	23.47	102.65	15.61
	후	77.45	11.26	100.27	12.71
자기존중감	전	94.15	11.98	93.02	8.27
	후	104.35	8.43	92.93	5.26
우울	전	46.95	8.78	46.56	5.82
	후	41.15	6.08	43.94	8.35

3. 가설검정

1) 가설1의 검정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행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정도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1의 검정결과는〈표 2-1〉과 같이 지지되었다.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역기능적 의사소통 정도에 대해 공변량 분석을 해본결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점수에 작용하는 사전검사의 공변량은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F=1.635, p=.6245), 주효과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071, p=.005).

따라서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행한 실험군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정도는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실험군과 대조군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정도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산원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P
공변량	2079.832	1	2021.322	1.635	.625
주효과	3364.538	1	1746.439	5.071	.005
잔여효과	2944.047	43	93.117		
전 체	8423.101	45	112.031		

2) 가설2의 검정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행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기존중감 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2의 검정결과는〈표 2-2〉와 같이 지지되었다.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존중감 정도에 대해 공변량 분석을 해본 결과 자기존중감 정도에 작용하는 사전검사의 공변량은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F=3.937, p=.0831), 주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031 p=.0437).

〈표 2-2〉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존중감 정도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산원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P
공변량	2583.753	1	2396.734	3.937	.0831
주효과	3062.241	1	2137.102	4.031	.0437
잔여효과	2736.318	43	142.854		
전 체	8103.324	45	158.913		

3) 가설 3의 검정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행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정도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3의 검정결과는〈표 2-3〉과 같이 지지되었다.

〈표 2-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울정도에 대해 공변량 분석을 해본 결과 우울 정도에 작용하는 사전 검사의 공변량은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F=2.538, p=.297), 주효과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4.531, p=.024). 따라서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행한 실험군의 우울정도는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우울정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정도에 대한 공변량 분석

변산원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P
공변량	463.542	1	458.036	2.538	.297
주효과	1095.834	1	728.709	4.351	.024
잔여효과	937.469	43	78.365		
전 체	2486.951	45	104.258		

4. 추가분석

1)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우울 정도 간의 상관관계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 실행전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우울 정도간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간의 상관관계는 r=-.3247, p<.05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었고 우울 정도와는 r=-.2471로서 상관관계가 없었다.

자기존중감과 우울간의 상관관계는 r=-.7566, p<.01로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유형과 자기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권위지향성과는 r=-.1320, 소심지향성과는 r=-.3778, 불성실지향성과는 r=-.3835, 희생지향성과는 r=-.4436으로서 권위지향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p<.05 수준으로 역상관 관계가 있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유형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권위지향성과는 r=-.2061, 소심지향성과는 r=.2613, 불성실지향성과는 r=.0521, 희생지향성과는 r=.3641로서 p<.05 수준에서 희생지향성만이 상관관계가 있었다.

Ⅳ. 논 의

1. 가설검정에 대한 논의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행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정도가 낮을것이다.」라는 가설 1은 실험처치후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p=.005)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역기능적 의사소통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능적 의사소통 강화를 위하여 정신분열증 환자의 어머니 집단에게 주 2회씩 모두 6회의 집단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을 받은 집단은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았음을 보고한 최연자(1986)의 보고와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감소되었다는 이미선(1994)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더욱 악순환 관계를 만든다고 한 Satir(1971)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정적감정 탐색 표현과 감정과 일치하는 표현기법을 통해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정도가 감소되었다고 본다.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행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기존중감 정도가 높을것이다.」라는 가설 2는 실험처치후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간의 자기존중감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p=.437)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자기존중감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훈련방법이나 대상이 본 연구와 같은 연구가 없으므로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여고생에게 의사소통 훈련방법인 집단 주장훈련을 시킨 결과 3개월 후 추후검사에서 자기존중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Stake(1983)의 연구와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상승시켰다고 한 김진규(1988)의 연구와 여대생을 대상으로한 Workman(1981)의 연구 및 20~58세의 여자들에 대한 Stake & Pearlman(1980)의 연구에서 주장훈련이 대상자의 자기존중감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와

〈표 3〉 역기능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우울간의 상관관계

	역기능적 의사소통	권위	소심	불성실	희생	자기존중감	우울
역기능 의사소통							
권 위	.8450**						
소 심	.6777**	.5391**					
불성실	.5355**	.4852**	-.0113				
희 생	.4269**	-.0513	.3293*	.1179			
자기존중감	-.3247*	-.1320	-.3778*	-.3835*	-.4436**		
우 울	.2471	-.2061	.2613	.0521	.3641*	-.7566**	

*p<.05 **p<.01

유사하였다.

홍경자와 노안녕(1985)은 자아개념 및 자존심에 미치는 또래 집단상담에 의한 결과는 유의하게 자존심 변화가 있었고, 윤용준(198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또래 집단 상담에서도 자기존중감이 개선되었고, 김선희(1987)의 연구에서는 집단상담이 자기존중감과 타인 이해증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 등에서 기법은 본 연구와 다르지만 집단상담을 통하여 자기존중감 증진이 되었다는 것은 유사하다고 본다.

Watkins(1980)는 자기존중감 수준은 한 개인이 사회적 행동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자기존중감이 낮은 자는 열등감, 죄악감이 저변에 깔려 있으므로 이러한 감정을 처리하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은 무가치감, 열등감을 표현하도록 하는 기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험군에서 자기존중감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본다.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행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정도가낮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실험처치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두 집단간의 우울 정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p=.024)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우울 정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숙(1987)의 여고생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지집단상담을 한 결과와 Taylor and Marshall(1977)의 우울과 자기존중감을 개선하기 위한 인지적-행동적 집단상담을 한 결과는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매주 2회씩 4주동안 주장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자기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한 결과는 우울감소를 위하여 효과적이었으며 우울수준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적 훈련프로그램의 효과는 인지훈련만 한 집단보다 더욱 우울정도가 감소되었다(이영태 1990).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훈련기법과 다른 방법이지만 집단훈련을 통해 우울이 감소되었다는 결과는 유사하다고 본다.

우울수준을 변화하기 위한 치료기법으로는 약물조정, 심리치료에서는 개인정신치료, 집단치료, 가족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을 적용하고 있다(민성길외 1996).

Beck and Greenberg(1974)는 우울증은 자기자신의 부정적 사고와 자기비난을 인식하도록 하고 보다 나은 현실적 사고로 대처하도록 학습시키면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Berlin(1978)은 자기비난을 줄임으로서 우울증과 낮은 자존심을 개선하였다.

김진규(1988)는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의를 부정하거나 자기가치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주장 부족 즉, 자기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부족하며 대인관계에서 불만을 경험하고 감정이 우울해진다고 보았다.

위의 여러 연구들의 인지적, 행동적, 주장적 집단상담이 우울상태를 감소시켰다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집단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가족원과 과거 부정적 감정에 대한 인지를 탐색시키고 부정적 감정 표현연습을 통해서 누적된 우울상태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이해와 인식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울정도를 감소시켰다고 본다.

2. 추가분석에 대한 논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우울간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기존중감과는 상관관계가 있었고, 우울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자기존중감과 우울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유형과 자기존중감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소심지향성, 불성실지향성 및 희생지향성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과는 역상관관계를 이루었고 자기존중감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하위유형과 우울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희생지향성이 정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과는 역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가치감을 상실했거나 의심을 하는 상황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게 되며, 사용하는 언어, 정서, 행동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향, 신체적 영향과 자기존중감을 저하시킨다는 Satir(1971)의 주장이 뒷받침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우울간은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게되면 부정적 감정이 누적되고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역기능적 교류를 하게되며 따라서 우울이 형성된다는 Satir(1983)의 이론을 지지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적합한 연구방법 접근을 모색하여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기존중감과 우울간에는 역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Rochlim(1965)에 의하면 중요한 대상에 대한 상실, 타인과 자신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우울이 유발된다고한 주장과 상대방에 대한 불만족감이 쌓여서 내부로 함입

되어 자아에 대항하게 되므로서 자기경시, 무가치감, 죄의식, 무력감, 등을 갖게된다는 Beck(1967)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사려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하위유형중에서 희생지향성이 자기존중감과는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우울간에는 정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희생지향성 특성은 무조건 참음, 가족을 위해 헌신함, 남을 지나치게 의식함, 무조건 동의함, 자기주장을 못함, 사과를 잘함, 지나치게 겸손함 등이 포함되며 공통점으로는 자기가치감이 부족하다는 특성이 있다(송성자, 1985)는 보고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희생지향성은 열등감과 우울감이 많으며 낮은 자기존중감을 가지게 되고 동시에 우울상태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대상자들이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 실시과정중 표현되는 내용중에서도 과거부모의 평가와 형제의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한 경험이 나타난 것을 볼수 있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형태는 방어적이고 폐쇄적이고 부단히 인정받으려고 반응하는 것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게 되며 습관화 되었으므로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은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가족치료 의사소통이론을 중심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간호학계에 부족한 간호중재 기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고, 둘째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 감정 노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기존중감을 높여줌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정신건강증진을 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정신과 환자에게도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은 적용가능하며 간호학생과 간호사를 위한 교육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

V. 요 약

Satir의 가족치료이론과 기법을 기반으로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연구자가 개발하여 정신질환자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은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우울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실험군(20명)과 대조군(25명)으로 나누어 대조군에서는 일반적인 가족교육을 전후 2회시키고 실험군은 집단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10회 실행하였다.

통계처리 방법은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비교하기 위하여, 실험군의 실행전후의 차이검정은 공변량 분석을 하였고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 우울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상관관계를 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우울상태 정도의 비교와 실험군의 프로그램 실행전후의 비교에서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실행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정도가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집단 의사소통 프로그램 실행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기존중감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집단 의사소통 프로그램 실행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정도가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2)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과 상관관계는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우울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자기존중감과 우울간의 상관관계는 높은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유형인 희생지향성은 자기존중감과는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우울과는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참 고 문 헌

김선희 (1986). 집단상담이 자족감과 타인이해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자 (1996). 집단상담에서 상담자의 자기노출이 내담자의 자기노출 및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김정희 (1981).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자기노출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규 (1988). 주장훈련과 자기 성장훈련이 여중생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1988

민성길 외 (1996).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p.217.

배영태 (1989). 자기존중감 향상을 위한 인지-행동적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송성자, 정문자 (1994). 경험적 가족치료. 중앙적성출판사, 68-83.

송성자 (1985). 한국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박사학위논문.

송성자, 정문자 (1996). 경험적 가족치료, Satir이론기법.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1-4.

유수경 (1996). Satir 가족치료 이론을 바탕으로한 집단상담 효과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윤용준 (1987). 또래에 의한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자기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선 (1994). 가족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의 효율성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영태 (1990). 우울수준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적 훈련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이형득 (1979). 집단상담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29.

임경숙 (1987). 여고생의 우울 불안 감소를 위한 인지적 상담과 심성개발훈련의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병재 (1976).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제11집, 107-130.

최연자 (1986). 기능적 의사소통 강화를 통한 가족접근이 정신분열증환자 회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최외선 (1992).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성원사, 14-80.

홍경자, 노안녕 (1985). 자아개념 및 자존심에 미치는 또래 상담자에 의한 집단 훈련의효과, 전남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제17권, 75-88.

홍경자 (1983). 의사소통과 기술훈련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15권, 전남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97-125.

Beck A. T. & Greenberg R. L. (1974). Coping with Depression, New York, Institute for Rational Living Inc., 20-30.

Blatt, S, J. D'Attlitti J. & Quinalan D. (1976). Experiences of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 of Abnormal psychology, 85(1), 383-389.

Berlin S.B(1978) :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cognitive behavior modification treatment on problems of Inappropriate self-criticism Among Wom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Burns. D & Beck. A (1978) : A cognitive behavior modification of mood disturbance in cognitive behavior therapy : Research and Application, New york, Plenum press, p.60-93.

Carkhuff R. R. (1971). Training as a preferred mode of group treatment, In G. M. Gazda(Id), group counseling :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Allyn & Bacon Inc.

Coopersmith S. (1967). The adolescents of self-esteem, SanFrancisco, Freeman.

Foley D. Vincent (1974). An Introduction of Family therapy, New York, Grune and stratton, 79, 92, 72, 145.

Murphy K. C and Strong S. R.(1972). Some of effects if similiarity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 121-124.

Rochlin G. (1965) : Grief and discontents : The forces of change, Boston, Little Brown, p. 10-15.

Satir V., Banmen J., Gerber J. & Gomori M. (1971). The Satir model : Family therapy and beyond,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p.62-309.

Satir V. (1972). People making, Palo Alto,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California, 55-79.

Satir V. (1983). Conjoint family therapy 2nd ed., Palo Alto, Califo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p. 92-183.

Shaw B. F. (1977). Comparison of Cognitive therapy and Behavior therapy in the treatment of depression. J.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43-551.

Stake J. E., Pearlman J. (1980) : Assertiveness Training as an Intervention Technique for Low Performance Self-Esteem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3), p. 276-281.

Tayor and Marshall W. L. (1977) : Experimental Analysis of a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 1(1) p.59-72.

Watkins, D. (1978) :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elf-Esteem Measuring Instru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p.171-182.

Workman J. F. (1982) : Change in Self-Esteem, Locus of Control, and anxiety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related to Assertion Training, DAI, 43(3), p.696-697

Weintraub M. Segal R. and Beck A.T. (1974). An Investigation of cognition and affect in normal men. J.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911.

-Abstract-

Key concept : Group communication program, Dysfuctional communication, Self-Esteem, Depression

The Effects of the Group Communication Program on the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the Group of Mothers with Children of Mental Disorders-

*Lee, Gil Za***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e group communication program which I had composed of using the Satir's communication family theory and skil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the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executed this program for the mothers group with caring the mental disorders, and then for the test of some hypotheses it was devided two groups ; the experimental group(n=20) and control group(n=25). In the control group they were learned two session family education program in the psychiatric clinic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y had experienced during the 10 session by the group communication program.

In the methods of the statistics on this datas, it was to statistics X^2-test for the comparison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The effect of the Group Communication Program was to analyse ANCOVA between pre-post test on the disfunctional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the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The conclusions were derived from the results and test of hypothesis as followings ;

1) The results were tested the differentia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and the pre-post test in the experimental group with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Some hypothesis were tested and supported as followings ;

   It was supported that the level of dysfunctional communication of the experimental group would be lower than the control group (Hypothesis 1).

   It was supported that the level of self-esteem of the experimental group would be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Hypothesis 2).

   It waw supported that the level of depression of the experimental group would be lower than the control group (Hypothesis 3).

2) The relation of the dysfunctional communication with the self-esteem was presented negative correlation and with the depression was not correlation.

   The relation of the self-esteem with the depression was presente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The relation of the sacrificuny pattern of dysfuntional communication with the self-esteem was presented negative correlation and with the depression positive correlat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nucil of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University for the degree of Ph. D. in Nursing science. 2. 1998

** Department of Nursing Medicine College Pusan National University